

# 안익상. 이난영 선교편지 아름다운 은혜 73

## 예수님을 따르는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국은 깊어지는 봄날에 꽃들이 만개했을 것 같습니다. 봄 풍경을 느껴본 지 너무 오래되어 그림습니다. 이곳은 건기가 깊어 가며 비가 안오는 날이면 밤이 되어도 열기가 식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날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이곳도 코로나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5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 합니다.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들도 계속 안 걸릴 수는 없을 것 같아 적절한 때에 걸리길 기도하게 됩니다. 안선교사는 지난달에 확진되어 자가 격리하며 치료를 하였습니다. 며칠 앓고 회복되었지만 기침과 피로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 공방 이야기

**코**로나 확진으로 예정된 일정을 연기해서 정비 코스를 몰아서 진행하느라 지난 한 달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비 코스에 오는 이들도 대부분 코로나를 앓아서 일정 변경과 기침을 하는 걸 이해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봉쇄 조치가 풀린 후 몇 개월이 지나며 정비 코스에 온 사람들에게서 회복된 일상의 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 초 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실직등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였는데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벌지 기대감을 드러내곤 합니다. 생활이 회복되어가고 사회가 활력을 찾아가는 것은 보기 좋은데, 코로나 기간



동안 마음을 터놓고 현실의 어려움을 말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 나아가 종교와 구원에 대한 대화가 어색하지 않았던 분위기는 이제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런 대화가 어렵지 않아 복음을 나누기 유익했던 코로나 기간이 감사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조금 더 애를 써야 마음을 열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슬람의 금식월인 라마단 중이라 공방 주변은 고요합니다. 식당들은 오후 늦게 문을 열고 상점들은 열지만 햇볕은 따갑고 금식으로 피로감이 높아 길에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비 코스를 하는 동안 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무슬림들로 인해 저는 멀쩡히 물병을 두고 가끔 마시면서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때때로 힘들거나 피곤하지 않은지 질문을 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려 했는데 지난 한 달간 만난 무슬림들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숙달되어서 자연스럽게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은 무슬림으로 신앙심을 돋보이고, 비무슬림과 이슬람을 주제로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라마단과 관련한 질문을 몇 번씩 하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번번히 형식적인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굳어진 마음밭이 복음을 심기에 척박해 보여서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 한국어 수업과 상담

**방**역 제한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굴속에서 동면하다가 바깥 세상으로 나온 느낌입니다. 최근 지인들과 다시 만나고 한국어 학생들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 왕래하지 못한 동안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들을 겪어낸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눈물짓고 위로하는 경험을 아주 오랜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누구는 암투병을 하고 있고, 누구는 가족과 뼈아픈 이별을 하고 누구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해 어느새 두 돌을 맞으며 그 시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저도 돌아보니 불확실한 미래와 통제된 사회 규제 속에서 견디느라 몸과 마음으로 긴장하며 힘을 쏟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애3:22-23)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카톡으로 전달받고는 오랫동안 묵혀온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코로나를 겪기 전에는 이 말씀을 잘 믿고 신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코로나 동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기 보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했던 긴장감이 더 컸나 봅니다. 돌이켜 지금도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크심을 믿고 경험하는 하루 하루를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현지인들을 주로 만나는 한국어 수업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는 심리상담과 수련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의 목적과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람들의 고통 사이에서 중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성실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수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의 공통된 본성이 분명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와 만남에 성령께서 늘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 자녀들의 일상

가은이는 걸리지를 다니며 대입을 위한 첫번째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험 수준과 형식, 기간이 모두 만만치 않아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하지만, 스스로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함 가운데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20대가 그러했듯 자녀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책임지면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겪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경험하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 나가길 소망합니다.

유은이는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대면수업이 이뤄지면서 학교생활을 적극적

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가 작고 환경이 열악한 편이라 마음이 쓰였는데, 기도해 주셔서 친구관계나 학업에 잘 적응하였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잘 누리고 활용하는 힘이 좋은 아이 같아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상황과 환경에 제한 받지 않고, 경험과 한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라서, 넓은 시각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한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마무리해가며 돌아보니 사람들의 연약한 본성이 드러났던 긴 위기의 시간에 복음이 사람과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진리임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복음에 유익했지만 고통과 아픔을 겪은 이들이 많은 시기였고 함께 만나 위로할 수도 없어 마음은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과 아픔에 있으신 분들의 회복을 소망하며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 힘써 후원해 주셔서 위로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4. 29

안익상. 이남영. 가은. 유은 올림

##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공방에서 복음과 성경적 가치를 나눌 때, 마음을 열어 주시고 들을 귀를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을 의지하며 지치지 않고 행하도록.
-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마음이 연결되고, 오래 동안 깊은 관계로 사귀어 온 이들이 영적인 삶에 더 마음을 열도록.
- 상담으로 돕는 이들의 삶과 가정에 진리와 긍휼을 부어주셔서 변화되도록
- 가은(20)이가 평안함 가운데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유은(15)이가 사춘기를 지나며 마음이 자라가고 두 아이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귀도록.
- 홀로 계신 양가 아버님의 건강(허리 통증, 고혈압)과 마음에 힘을 주시도록

기도편지는 인터넷, SNS, 홈페이지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후원계좌: 외환은행 990-090819-162